



# 하나님의 법

오늘의 기독교인을 위한 하나님의 법

[hananimuibep.org](http://hananimuibep.org)

## 부록 8d: 정결 법 — 성전 없이 지킬 수 없는 이유

이 페이지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존재할 때에만 순종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법들을 다루는 시리즈의 일부입니다.

- [부록 8a: 성전을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법](#)
- [부록 8b: 제사 — 오늘날 지킬 수 없는 이유](#)
- [부록 8c: 성경의 절기들 — 오늘날 어느 것도 지킬 수 없는 이유](#)
- [부록 8d: 정결 법 — 성전 없이는 지킬 수 없는 이유](#) (이 페이지)
- [부록 8e: 십일조와 첫 열매 — 오늘날 지킬 수 없는 이유](#)
- [부록 8f: 성찬 예식 — 예수의 마지막 만찬은 유월절이었다](#)
- [부록 8g: 나실인과 서원 법 — 오늘날 지킬 수 없는 이유](#)
- [부록 8h: 성전과 관련된 부분적·상징적 순종](#)
- [부록 8i: 십자가와 성전](#)

토라에는 의식적 정결과 부정에 관한 상세한 법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계명들은 결코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도 그것들을 취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불신실함에 대한 응답으로, 성전과 제단과 제사장직과 그분의 나타난 거처를 그 민족 가운데서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 제거 때문에, 정결에 관한 계명들은 오늘날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수세기 동안 이스라엘 가운데 자신의 임재를 세우셨습니다(출애굽기 15:17; 역대하 6:2; 열왕기상 8:12-13). 그러나 서기 70년 이후, 그분의 거룩하심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그 임재를 실제로 마주하던 성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 율법이 명령한 것

율법은 정결(**תָהוֹר** — tahor)과 부정(**טָמֵא** — tamei)이라는 실제 법적 상태를 규정했습니다. 사람은 인간 삶의 평범하고 피할 수 없는 현실로 인해 부정해질 수 있었습니다. 출산(레위기 12:2-5), 월경과 그 밖의

물에서 나오는 유출(레위기 15:19-30), 그리고 시체 접촉(민수기 19:11-13) 등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들은 죄악된 행위가 아니었고, 죄책도 동반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거룩한 것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제한하는 법적 상태일 뿐이었습니다.

이 모든 경우에 대해, 율법은 정결하게 되는 절차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어떤 경우는 저녁까지 기다리는 것만으로 충분했고, 어떤 경우는 씻음이 필요했습니다. 또 여러 경우에는 제사장의 관여와 제사가 요구되었습니다. 핵심은 이스라엘이 “부정하다고 느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하심 주위에 실제 경계를 법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 이 법들이 존재했던 이유

정결 체계는 하나님께서 정해진 거룩한 공간 가운데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셨기 때문에 존재했습니다. 토라 자체가 이유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부정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했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거처가 더럽혀지지 않게 하며, 백성이 더럽혀진 상태로 그분의 거룩한 임재에 가까이 나아가다가 죽지 않게 해야 했습니다(레위기 15:31; 민수기 19:13).

이 말은 곧, 부정의 법들이 생활 습관이나 건강 조언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것들은 성소의 법이었습니다. 그 표적은 언제나 동일했습니다. 하나님의 거처를 보호하고, 그 거처에 대한 접근을 규율하는 것이었습니다.

## 성전은 단지 ‘장소’가 아니라 ‘관할’이었다

성소는 종교 활동이 이루어지는 편리한 건물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많은 정결 법들이 효력을 갖는 법적 무대였습니다. 부정이 문제였던 이유는 지켜야 할 거룩한 공간이 있었고, 보호해야 할 거룩한 물건이 있었으며, 보존해야 할 거룩한 봉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속된 것과 거룩한 것 사이의 법적 경계를 만들었고, 율법은 그 경계가 유지되도록 요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불신실함에 대한 응답으로 자신의 거처를 거두어 가셨을 때, 그분은 율법을 폐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많은 정결 법들이 집행될 수 있는 관할을 제거하셨습니다. 거처가 없으면, 규율해야 할 합법적 “접근”도 없고, 더럽혀지지 않도록 지켜야 할 거룩한 공간도 없습니다.

## 기본 법과 ‘차단’ 절차

레위기 15장에는 가정 수준의 많은 세부 사항이 나옵니다. 부정한 침상, 부정한 자리, 씻음, 그리고 “저녁까지 부정함” 등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세부는 영구한 생활양식을 만들기 위한 독립적 계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부정이 하나님의 거처에 이르러 거룩한 것을 오염시키지 못하도록 막는 차단 절차였고, 그 유일한 기능은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절차들을 그 자체로 “경건 행위”처럼 따로 떼어 재현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들이 보호하도록 설계된 성소 없이 그것을 재연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 상징적 모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체계를 대체할 어떤 대안도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거두어 가신 거룩한 거처가 아직 서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데에는 하나님께 드릴 영광이 없습니다.

## 정상 월경

정상 월경은 토라의 부정들 가운데 독특합니다. 그것은 예측 가능하고, 피할 수 없으며, 시간의 경과로만 해소되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7일 동안 부정했고, 그녀가 눕거나 앉았던 것은 모두 부정하게 되었으며, 그 물건들을 만진 자는 저녁까지 부정했습니다(레위기 15:19-23). 그 기간에 남자가 그녀와 같은 침상에 누우면, 그도 7일 동안 부정했습니다(레위기 15:24).

이처럼 규칙적이며 시간으로 해소되는 부정은 제사장이나 제사나 제단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법적 목적은 거룩한 공간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법들은 일상생활을 마비시키거나 지속적으로 예루살렘 가까이에 머물도록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정결과 부정의 상태가 중요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거처가 실제로 존재했고, 그 거처에 대한 접근이 그분의 윤법으로 다스려졌기 때문입니다. 거처가 제거된 지금, 이러한 가정 수준의 정결 규정은 더 이상 합법적으로 적용될 대상이 없으므로, 오늘날 지킬 수 없습니다.

**중요한 분명한 구분:** 월경 중인 여인과의 성관계를 금하는 명령은 전혀 다른 계명입니다. 그것은 정결 절차가 아니며, 성전이 없어도 의미나 집행력이 사라지지 않습니다(레위기 18:19; 레위기 20:18). 이 성적 금지는 매우 엄중하며, 오늘날에도 반드시 지켜야 할 별개의 명령입니다.

## 비정상 출혈

정상 월경 주기 밖에서 일어나는 출혈은 다른 범주로 분류되었고, 성전에 의존하는 종결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여인은 출혈이 지속되는 동안 부정했고, 출혈이 끝나면 날짜를 세고, 그 다음에는 성소문에서 제사장에게 예물을 가져와야 했습니다(레위기 15:25-30). 이것은 “시간만으로” 끝나는 범주가 아닙니다. 이것은 “제사장과 예물”的 범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는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종결을 위해 요구된 체계를 제거하셨기 때문입니다.

## 시체 부정

시체 접촉은 성소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심각한 형태의 부정을 낳았습니다. 토라는 여기서 매우 엄중하게 말합니다. 부정한 사람이 그 거처를 더럽히면 끊어질 것이며, 그 더러움은 하나님의 거룩한 공간에 대한 직접적인 범죄로 취급됩니다(민수기 19:13; 민수기 19:20). 정결하게 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도구들과, 작동하는 성소 체계에 의존했습니다. 성전의 관할이 없이는, 이 범주는 계명대로 합법적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처를 거두어 가셨을 때 무엇이 바뀌었는가**

하나님께서는 심판 가운데 성전과 제단과 레위 제사장직을 제거하셨습니다. 그 제거로 인해, 정결 체계는 법적 무대를 잃었습니다. 보호해야 할 거룩한 공간도 없고, 규율해야 할 합법적 접근 지점도 없으며, 율법이 제사장 관여를 요구할 때 그 행위를 집례할 임명된 제사장직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정결에 관한 계명들은 실천될 수 없습니다 — 율법이 끝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들에게 법적 효력을 부여하던 관할을 제거하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여전히 서 있습니다. 성전은 그렇지 않습니다.

## 상징적 “정결례”가 불순종인 이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체계를 사적인 의식, “영적” 씻음, 혹은 창작된 가정 재연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대체물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정결의 새로운 버전을 즉흥적으로 만들어낼 자유가 없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의 도구들을 제거하실 때, 신실한 반응은 모방이 아닙니다. 신실한 반응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인정하고, 발명을 거부하며, 현재 수행될 수 없는 계명들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 결론

정결의 법들은 결코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며, 그분의 거룩한 임재에 대한 접근을 규율하셨기 때문에 존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실향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처와 성전과 제사장직을 제거하셨습니다. 그 제거 때문에, 성소에 기반한 정결 체계는 오늘날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 지킬 수 있는 모든 것을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불가능하게 하신 것을 그분의 행하심을 존중함으로써 존중하며, 그분의 계명들을 상징적 대체물로 바꾸기를 거부합니다.